

**IFES**

# 뉴스레터

2024년 3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뉴스레터  
18호(3월)  
목차

## 연구활동

---

1. 연구소 중점사업	3
2. 학술활동	5
3. 교수 연구활동	11
4. 교수 논문·브리프	14
5. 2024 Fellowship 사업	17
6. 북한·국제 정세 동향	18

## 연구소 소식

---

1. 연구소 동정	25
2. 추천 도서	26
3. 예정사항	27
4. 안내사항	28



---

## 연구활동

연구활동



# 1. 연구소 중점사업

## 2023학년도 주요사업 추진결과 및 2024학년도 중점 사업계획 (2023. 3. ~ 2024. 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23학년도 주요사업 추진결과 및 2024학년도 중점 사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 1. 2023학년도 주요사업 추진결과

- 학술회의·세미나 개최 : 17회
  - △학술회의·통일전략포럼 2회 △삼청포럼 5회 △세미나·라운드테이블 10회
- 연구서 발간: 4권
  - 북한법질서에서의 법치개념(박서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의 핵과 정치권력 변화(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신냉전 시대는 도래하는가?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외 6인)
  - 북한의 핵 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박정진 경남대 부총장 외 9인)
- 공동연구회 개최 : 6회(주제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의 국제정치)
- 한반도포커스 발간 : 3권
  -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와 미래 (전재성 서울대 교수 외 6인)
  - 중국의 영역별 리스크 현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루신지 대만 국립중흥대 교수 외 5인)
  -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이영훈 동국대DMZ평화센터장 외 4인)
- 정기 간행물(학술지) 발간 : 8권
  - Asian Perspective : 4권 (No.1 / No.2 / No.3 / No.4)
  - 한국과 국제정치 : 4권 (제1호 봄 / 제2호 여름 / 제3호 가을 / 제4호 겨울)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
  - ‘펠로십 프로그램’ 4개국 6명 수료
  - ‘해외 정책·학술 연구지원 프로그램’ 5개국 6건 지원 완료

## 1. 연구소 중점사업

---

- 북핵아카데미 추진 : 2회, 45명 수료
- 현안자료 발간 : 10회(연합뉴스, 서울평양뉴스 상시 게재)
- 2023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개발 : 2개 강좌
  - 한반도 문제의 입체적 이해: 세 개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내가 모르는 내 성격 (이형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시설관리 : 평화관 오배수 배관공사 교체 (2023. 6월)

## 2. 2024학년도 중점 사업계획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자체 운영 인프라 마련 추진
  - '24년도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 5년차(마감)
  - '25년도부터 연구소 자체 운영(브랜드 사업화)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마련
- 북한대학원대학교 공동 학술·교육·연구 프로젝트 개발
  - 북대 출신의 석·박사와 동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학술회의, 세미나 개최, 연구서 발간 등 지원
- 북한원전 특수자료 확대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협력을 통한 북한 특수자료(원전) 전산화 등 보유 확대
-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을 통한 연구소 재정자립도 확충
  - 연구서, 발간물을 통한 수익 증대
  - 도서관 특수자료 확보를 통한 회원 추가 확보
  - 아카데미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통한 수익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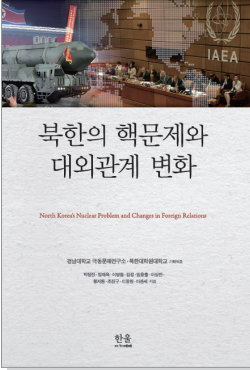
### ※ 연구소 조직(연구센터) 개편(지역별 연구센터 보강, 연구 기반 활성화)

- 일본센터 → 일본연구센터: 센터장 조진구 교수
- 중국센터 →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이상만 교수
- 북핵센터 → 북핵연구센터: 센터장 이병철 교수
-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ICNK) (폐지)
  - 북한연구센터 (신설): 센터장 임을출 교수
- 미국연구센터 (신설): 센터장 정재욱 교수

## 2. 학술활동

단행본  
(교과서)

### 북한의 핵 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2024. 2. 20.(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한·통일학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북한의 변화에 대해 북한 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지침서, 일반 대중에게는 유용한 해설서(교과서)를 기획·출판하게 되었다. 총 2권으로 발간되는 이 해설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 및 대외 변화와 그 과정에서 발견된 함의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은 북한의 핵을 중심으로 대외관계 변화를 고찰한다. 국제 핵질서 및 패권대항 국가전략, 대외경제정책, 미·중·일·러와의 관계 등을 연표, 추가 읽을거리, 토론 쟁점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학술적 깊이와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했다.

####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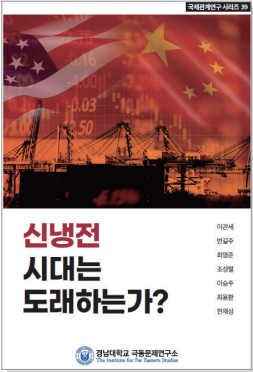
- chapter 1. 북한 핵 프로그램: 전략의 결과와 북한의 변화**
  - 박정진(경남대 부총장)
- chapter 2. 핵무기 보유와 외교정책의 변화: 이론적 접근**
  - 정재욱(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chapter 3. 북한 핵무기 개발 동인 및 과정, 그리고 한국의 대응**
  - 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chapter 4. 북한 핵개발과 국제 핵질서: 패권대항 국가의 전략**
  - 김정(북한대학원대 교수)
- chapter 5. 북한 핵문제와 대외경제정책 변화**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chapter 6. 북한 핵 보유와 북중관계의 변화**
  -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chapter 7.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의 변화**
  -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 chapter 8. 북한 핵문제와 북일관계의 변화**
  -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chapter 9. 북한 핵실험 이후 북러관계의 변화: '냉각'에서 '초밀착'으로**
  - 이웅현(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
- chapter 10. 북한 핵개발과 대외관계 변화**
  -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 국제관계연구 시리즈 39

단행본

## 신냉전 시대는 도래하는가? 2024. 2. 23.(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관계연구 시리즈 39 『신냉전 시대는 도래하는가?』는 7인의 전문가를 통해 현 국제질서에서 신냉전이라 평가할 만한 특징들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신냉전 시대에 요구되는 학문적 분석과 평가를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전략 발전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총서는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명확한 진영으로 갈리고 이념적 대결로 극단적 대립을 보인 것과 달리 21C 미중 간 전략 경쟁은 여러 이슈를 둘러싼 네트워크 싸움으로 평가했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소위 열전시대 속에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질서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생존과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언하고 있다.

#### < 목 차 >

- 국제질서 전사(前史)에 대한 소고  
-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 신냉전 개념을 통해 본 국제질서  
- 반길주(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 미중 전략적 경쟁(신냉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견해와 논쟁  
- 최영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미·중 전략경쟁 시대 동아시아 신냉전과 한반도 정전  
- 조성렬(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 신냉전과 공급망 재편: 공급망의 안보화를 중심으로  
- 이승주(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과 대외전략  
- 최용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신냉전 담론과 한국의 국가전략  
- 전재성(서울대 정치국제학부 교수)

## 북한연구 시리즈 67

단행본

## 북한의 핵과 정치권력 변화

2024. 2. 8.(목),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 책의 목적은 핵과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핵이 북한의 정치권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핵 프로그램 개발, 고도화의 목적은 국가안보 강화와 체제 유지이지만 북한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체제 내 결점의 보충과 해결 및 체제 생존능력 과시의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 프로그램은 국가안보 강화, 최고지도자의 영속적인 리더십과 체제 생존력 강화, 강대국으로서 국제적 지위와 역할 향상을 위한 자주 확립을 주목적으로 전제하고 국내 정치권력 변화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 무장국뿐 아니라 정치권력 변화를 통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김정은식 사회주의 체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 &lt; 목 차 &gt;

- I. 머리말
- II. 이론적 논의: 핵무기와 국내 정치권력 간 관계
- III. 북한의 핵무력 건설 과정과 정치권력의 변화
- IV. 북한의 핵무력 완성 이후 정치권력의 변화
- V. 맺음말

참고문헌

## 2. 학술활동

###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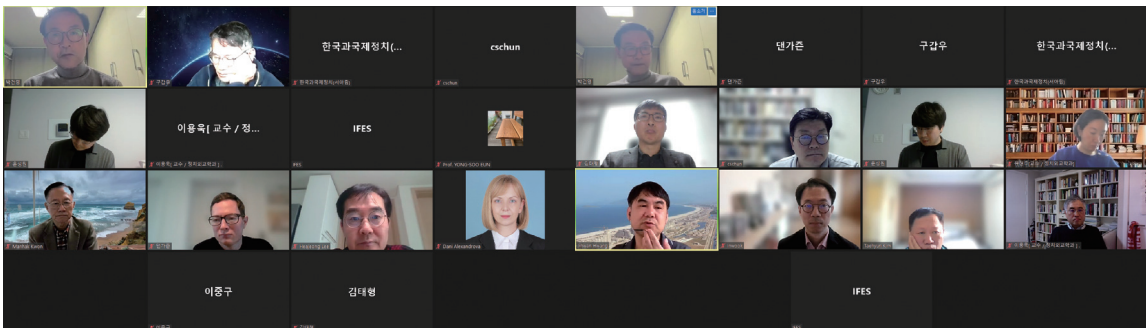
## 『한국과 국제정치』 2024년 특집호 중간발표회 (2024. 2. 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한국과 국제정치』 2024년 특집호(40권 1호) 발간을 위한 중간 발표 줌(Zoom) 회의를 2월 5일(월) 개최 하였다.

이날 줌(Zoom) 회의는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김인옥 성균관대 교수, 전채성 서울대 교수, 이용욱 고려대 교수, 유현주 한국외대 교수, 김태형 송실대 교수, 김태현 중앙대 명예교수, 권만학 경희대 교수, 댄 가즌(Dan Gudgeon) 북한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이해정 중앙대 교수, 윤성원 한양대 교수, 요르단카 알렉산드로바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은용수 한양대 교수, 이종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와 토론에 참석했다.

회의 내용으로는 △‘전망이론과 김정은 시기 북미관계: 2012-2023’ △‘북미관계의 권역이론적 분석’ △‘신호이론의 수신(受信) 매커니즘과 북미 관계’ △‘국제 위기 흥정 이론과 북미 관계: 제1차 북핵위기 (1993~94)의 사례’ △‘인정투쟁과 조미관계’ △‘미국 대북담론 구조 연구: 대통령 화행을 중심으로’ △‘존재론적 안보론과 북미관계: 이론과 현상, 새롭게 보기’ 등 7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전체 회의 사회를 맡은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북미관계를 추동하는 혹은 마비시키는 핵심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이었으며, 북미관계 전체를 또는 특정 사건이나 상호작용을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고 입체적·구조적 접근방법으로 살펴보며 분석도구로서 다양한 이론의 틀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 세미나

## 북한문제 전문가 비공개 라운드테이블 (2024. 2. 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2월 6일(화) 국내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통일문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북한문제 전문가 비공개 라운드테이블」(평화관 1층 대회의실)을 개최하였다.

이날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에는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무일 서원대 초빙교수, 이상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권영경 국립통일교육원 명예교수, 이창열 AP글로벌컨설팅 중국센터장, 정준희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위원, 김충환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원장, 이봉기 남북사회통합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 두 개 국가론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과 관련 △북한의 전략 노선 선택 배경과 전망 △북한의 전원회의·최고인민회의의 의미와 특징 △북중려 연대에 대한 중국의 시각 △동독의 통일정책과 두 민족 두 국가 사례 등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2. 학술활동

### 간담회

## 로렌 수킨(Lauren Sukin, 영런던정경대 국제관계학 교수) 방문 간담회 (2024. 2. 2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2월 20일(화) 런던정경대학교(LSE) 로렌 수킨(Lauren Sukin) 교수 방문 간담회(평화관 1층 소회의실)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디올렛 부소장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병철·정재욱·김상범 교수 등이 참석하여 수킨 교수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와 한반도의 정치 및 안보 상황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수킨 교수는 핵무기와 동맹정치를 연구하는 국제 안보 전문가로서 과거 진행한 연구들을 설명하고, 미국 핵안전보장의 위험성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핵 동맹국 간의 신뢰할 수 있는 핵안전보장이 어떻게 역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미동맹에 관한 인식 △한국의 핵보유 가능성에 대한 여론 △최근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증가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남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 3. 교수 연구활동

### 학술활동

#### 임을출 교수

1. 국회의원 김홍걸 주최, 하노이 회담 5주년 기념 토론회  
- 일자 : 2024. 2. 29.(목)  
- 내용 : 미국 대선과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북한의 새 외교전략과 미국 대선') 발표
2. 국토연구원 주최, SDGs 기반의 도시협력을 위한 한·중·일 세미나  
- 일자 : 2024. 2. 19.(월)  
- 내용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시협력 방향' 토론

#### 김상범 교수

1. 남북평화재단 주최, 제1차 통일마당 남북관계 토론회  
- 일자 : 2024. 2. 6.(화)  
- 내용 : '북한의 적대적 국가관계 선언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운동 과제' 토론
2. 국회의원 김홍걸 주최, 하노이 회담 5주년 기념 토론회  
- 일자 : 2024. 2. 29.(목)  
- 내용 : '미국 대선과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 토론

#### 최영준 교수

1. 민주평통 이북5도 지역회의 및 동남아협의회 주최, 해외 학술 세미나 참석(대만)  
- 일자 : 2. 1.(목) ~ 2. 3.(토)  
- 내용 : '미중 경쟁의 피고에 대한 이해와 대응-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제언' 발표
2. 고양시정연구원 정책 자문  
- 일자 : 2024. 2. 7.(수)  
- 내용 : '고양시 남북 의료협력 클러스터 조성 및 발전방안' 평가 및 개선방안



### 3. 교수 연구활동

---

#### 문미리 교수

1. 영국 SCOPUS 저널 논문(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등재

- 일자 : 2024. 1. 31.(수)

- 내용 : 'K-pop의 미디어 표현: 한국, 영국, 미국의 비교 연구'

#### 안호영 석좌교수

1. 美 인권대사 터너(Turner) 면담

- 일자 : 2024. 2. 19.(월)

- 내용 : 유엔 COI 보고서 1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특히 외부 정보의 북한 전파 중요성 강조

2. 美 장성 캡스톤(Capstone) 그룹 면담 (前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켈리 장군 인솔로 방한)

- 일자 : 2024. 2. 20.(화)

- 내용 : 미국이 주도해 온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는 현재, 미군 장성들의 각별한 문제 의식과 분발이 필요함을 강조

3. 아산 정책 포럼 참석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한 토론회 패널리스트)

- 일자 : 2024. 2. 20.(화)

- 내용 : 양안 관계의 평화 유지를 위한 우리의 역할과 한·대만 실질 관계 증진의 중요성 강조

4. 국제 이주 기구 에이미 포프(Amy Pope) 총장 면담

- 일자 : 2024. 2. 29.(목)

- 내용 : 새로운 형태의 난민인 기후 난민에 대한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역할을 평가하고, IMO가 탈북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

## 언론활동

### 임을출 교수

1. YTN [뉴스라운지] 출연
  - 일자 : 2024. 2. 16.(금)
  - 내용 : 김정은, NLL 도발 위협...북한, 한국·쿠바 수교 견제?
2. CNN 인터뷰
  - 일자 : 2024. 2. 15.(목)
  - 내용 : 'Kim Jong Un has broken with decades of North Korean policy'

### 이병철 교수

1. 파이낸셜 뉴스 기고
  - 일자 : 2024. 2. 8.(금)
  - 내용 : '현명한 에너지 선택이 필요하다'

### 최영준 교수

1. 타이완의 소리-RTI 한국어 방송(라디오) 인터뷰
  - 일자 : 2024. 2. 5.(월)
  - 내용 : '평화추구와 통일 지향'

### 안호영 석좌교수

1. 한국일보 "안호영의 실사구시" 기고
  - 일자 : 2024. 2. 5.(월)
  - 내용 : "김정은 협박, 두려워 말되 준비 철저히" 제하,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여력이 없으나, 국지전을 도발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는 의견
2. 중앙일보 시론 기고
  - 일자 : 2024. 2. 20.(화)
  - 내용 : "민족공조를 정권 세습에 이용해 온 북한 민낯" 제하, 북한이 민족동질성을 부인하는 것은 체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나, 우리는 민족과 통일의 중요성을 계속 부각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
3. 코리아 타임스 기고
  - 일자 : 2024. 2. 21.(수)
  - 내용 : "What is to be done with North Korea's threats?" 제하,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여력이 없으나, 국지전을 도발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는 의견



## 4. 교수 논문·브리프

### 논문(요약)

#### 케이팝(K-pop)에 관한 BBC, CNN 언론 보도: 코퍼스 기반 담론 분석 (SCOPUS 등재)

2023. 12. 30. 문미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Asian Communication Research』 Vol.20. No.3

이 논문은 ‘한류(Hallyu)’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생겨났고, 한류 1.0, 2.0, 3.0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정리한다. 이를 통해 한국 영화, 드라마, 가요가 주변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유럽 수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고 K-컬처 중 가장 파워풀한 영향력을 가진 케이팝(K-pop)에 대해 세계인들의 시각과 주요 글로벌 뉴스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BBC와 CNN의 보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BBC와 CNN은 케이팝(K-pop)이 한국 정부가 수출 전략으로 생산한 ‘문화 상품(cultural commodity)’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BC 보도는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관련 케이팝 스타의 발언과 이를 비판하는 중국인들의 웨이보(Weibo) 포스팅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한국과 중국의 갈등 프레임을 주로 적용했고, CNN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케이팝(K-pop) 팬(fan)들을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 캠페인(Black Lives Matter)이나 선거 캠페인(rally)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force)으로 뉴스 담론을 재현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글로벌 뉴스미디어의 역할과 왜 외신의 비서구 문화에 대한 보도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지 논의했다.

### 논문(요약)

#### ‘탈진실’ 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과 공영방송의 역할: BBC와 EBS 콘텐츠 비교 연구

2023. 12. 31. 문미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국과 국제사회』 제7권 6호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이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오랫동안 인식됐고, 이에 관한 방대한 연구와 정책이 시행됐다. 그러나 미디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소셜미디어,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OTT 등 멀티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가짜 뉴스, 오정보, 혐오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탈진실(Post-truth)’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유네스코(Unesco)는 글로벌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본 연구는 글로벌 공영방송의 준거점으로 손꼽히는 영국 BBC와 국내 교육 공영방송 EBS가 제공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콘텐츠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BBC와 EBS는 공통으로 비판적 이해(critical thinking)를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가치로 보았다. 특히, BBC는 신뢰할 수 있는 뉴스와 오정보나 허위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과 에코 챔버(echo chamber)가 사람들의 편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능력, 혐오나 증오 표현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역량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국내 현실과 미디어 환경에 맞는 일관성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글로벌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청소년과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증진과 디지털 웰니스(Wellness)를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 논문(요약)

## 케이팝(K-pop)에 관한 미디어 재현: 한국, 영국, 미국 비교 연구 (SCOPUS 등재)

2024. 1. 31. 문미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Online First

한류의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공공 외교(public diplomacy)와 문화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오리엔탈리즘 이론을 적용해 한국, 영국, 미국 언론은 한국 음악 산업과 셀러브리티(Celebrity), 팬덤을 어떻게 타자화 했고, 케이팝(K-pop)을 어떻게 재현 했는지 분석했다.

연구결과, 외신은 K팝 산업의 성공 요인으로 ‘노예 계약’을 강조하는 논조로 보도하며 K팝 키워드를 자사의 뉴스 노출에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CNN은 북한이 외국 미디어 이용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고 한국이 K팝 아이돌(Idol)들을 노예 취급한다는 북한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계 증오 범죄(hate crimes) 캠페인을 위해 BTS를 백악관에 초대한 이벤트와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에 저조한 참석률이 K팝 팬들의 ‘노 쇼’ 시위 탓이라는 기사를 보도하는 등 K팝이 미국 정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반영했다. 반면, KBS는 세계 시장에서 K팝 산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BTS 팬클럽 아미(ARMY)의 자선 활동을 강조하며 K팝이 국제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주요 담론으로 뉴스를 재현했다.

이 연구는 외신보도가 한 국가의 이미지와 문화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K팝에 관한 뉴스가 정치적인 측면보다 한국 음악의 한 장르(genre)로서 그 국가의 고유한 가치와 문화적 해석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IFES브리프(요약)

## 동독의 대서독정책의 변화와 그 함의

2024. 2. 5. 박서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023년 말 북한에서는 대남부문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선언된 바, 그 핵심은 남북관계가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고착됨에 따라 ‘동족관계’를 전제로 한 종전의 통일정책이 무용해졌다는 데 있음.

이에 독일민주공화국(동독)도 과거 대서독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대남인식 및 통일정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책적 함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동독의 대서독정책의 변화는 동독이 동서독관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1민족-1국가단계, 1민족-2국가단계, 2민족-2국가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도 유지되었던 통일 지향은 세 번째 단계로의 진입, 즉 2민족이론의 수용과 함께 포기되었음.

동독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함의들 중 중요한 하나는 2국가론이 그 자체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통일의 열쇠가 되는 개념은 국가가 아니라, ‘민족(nation)’이었다는 것임.

북한이 2민족-2국가단계의 초입에 들어선 가운데, 우리 헌법의 통일의무는 북한이 2민족-2국가단계에 확정적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이 해당 단계에 진입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하여 종족·언어·문화적 동질성 외에도 남과 북을 하나의 ‘민족’으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들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

# 5. 2024 Fellowship 사업

## 2024 Fellowship 6人 선정 결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23년 10월 10일(화)~2024년 2월 26일(화)까지 『2024년도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지원 사업-펠로십』 대상자를 모집하여 6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는 본 프로그램에 7개국 11명이 지원하여 2: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발된 펠로들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펠로 6명을 대상으로 특강, 발표회, 워크숍 등을 통해 학문적·정책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 < Fellowship 선발자 명단 >

- Miyamoto, Satoru (일본, 세이가쿠인대 정치과학·경제학부 교수)  
- 연구 주제: 북한의 대외관계가 북한의 체제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 Yang, Xiangfeng (중국, 홍콩 링난대학 조교수)  
- 연구 주제: 2018년 이후로 중국-북한 간 관계와 미주도의 중심-톱니바퀴 시스템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 Horiyama, Akiko (일본, 마이니치신문 외신부 기자)  
- 연구 주제: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 모색과 북한인권정책에서의 한일제휴 가능성에 대한 분석
- Pan, Binbin (중국, 아주대 정치외교학 박사)  
- 연구 주제: 1992년 (중국-한국 직접 무역 개시, 중국-북한 무역의 현금거래 방식 변경) 이후 중국과 북한, 중국과 한국 간의 정치경제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북중 및 한중 무역의 비교 분석
- Kim, Yeonhee (미국, 하와이대 미노아캠퍼스 정치학 박사)  
- 연구 주제: 대한민국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남북한 관계에 대한 공공외교 및 문화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Liao, Muchun (중국,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박사과정생)  
- 연구 주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래 경제 지원에 대한 중국의 관용 가능성

## 6. 북한·국제 정세 동향

### 북한

- 김정은, 인민군 창설 76주년 건군절 기념사 (노동신문, 2.10.)  
- “한국은 제1적대국…협상 아닌 힘으로 평화 지키겠다” 언급
- 2.14. 김정은 위원장 지도 하,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 발표 (노동신문, 2.15.)  
- 김정은, ‘북방한계선’ 불인정, 연평도 및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 군사적 대비 태세 강화 지시
- 2.15. 북한 당 대표단, 통합러시아당 초청 방러 (노동신문, 2.18.)  
-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노동당 대표단 방러 및 ‘민족들의 자유를 위하여’ 제1차 회의(2.15.~2.17.) 참가
- 2.15. 김여정 당부부장, ▲일본인 납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문제 삼지 않으면 “수상(기시다 총리)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주장 (조선중앙통신, 2.15.)  
- 담화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가지도부는 조일관계개선을 위한 그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접촉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언급  
\* 일본, 2.16. 北 김여정 당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고 공식입장 표명

### 미국

- 美 재무부, 2024 National Proliferation Financing Risk Assessment 보고서 (VOA, 2.8.)  
-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정보기술 노동자의 파견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
- 美 백악관, “북한 첨단 무기 개발 심각하게 인식...북러 국방협력 깊이 우려” (VOA, 2.14.)

### 중국

• **중국, 미국 방산업체 5곳 제재(VOA, 1.7.)**

- 타이완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와 중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미국의 제재 대응

• **중국 왕이부장 (연합뉴스, 2.18.)**

- “한반도 문제는 당사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이 우선이며, 상황의 안정 회복 실현과 악순환 방지가 급선무” 언급

### 일본

• **일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교도통신, 2.12.)**

-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1,400억원 무상 지원 예정

### 러시아

• **주 북한 러시아 대사, “한반도에서 미 도발 계속 땀 북, 핵실험 감행” (한겨레, 2.7.)**

-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1,400억원 무상 지원 예정

• **러시아, 코로나19 이후 첫 북한 단체관광 재개 (타스, 2.9.)**

- 러시아 관광객 97명, 2.9 ~ 12 스키 여행 위해 북한 방문

- 러시아인의 북한 여행 활성화를 위한 비자 간소화 작업 진행 중

\* 3.8~11, 3.11~15 두 차례 걸쳐 러시아 단체 관광객 방북 예정

### 〈한반도 정세 관련 해외 전문가 논평〉

- Robert R. King(前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유엔 북한인권실태조사 10주년 평가 (CSIS, 2.6.)
  - 북한인권실태 보고서는 평양에 압박을 가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북한의 국제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고, 위원회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서울에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를 설립한 것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문서로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설명
  - 그러나 보고서 출간 10주년이 다가와도 북한은 여전히 가장 비참한 인권 기록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고, 북한 당국이 해당 정보에 대한 주민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지만, 인권 유린에 관한 정보가 보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체제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언급
- Bradley O. Babson(한미경제연구소 고문): 북한의 선제적 경제 전략의 이해와 전망에 대한 평가 (38 North, 2.9.)
  - 김정은은 다양한 경제 우선 과제를 강조하며, 중요한 산업 분야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학과 기술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명
  - ‘지방 발전 20x10 정책’으로, 10년 동안 20개 군(郡)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적 성장을 촉진하며 삶의 수준 차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움
  - 한편으로 중국·러시아와의 무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와 김정은의 바램과 달리, 현지 당국자들의 무관심 또는 무능력이 지역 발전 노력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등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고 평가
- Robert L. Carlin(38 North 비상임 연구위원), and Rachel Minyoung Lee(38 North 선임 연구위원): 김정은의 경제 정책결정 이해 관련 (38 North, 2.9.)
  - 북한 경제 정책에 관한 주요 발견으로 ▲체계적인 정책 전개 ▲다양한 견해 상존 ▲중앙집중화 대 탈중앙화 논쟁 ▲외부 경제 조치의 통합 ▲중앙집중화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언급
  - 시사점으로 북한의 경제 개혁 입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과도 중요한 연계가 있으므로 경제 정책과 다양한 시기에 이루어진 외교 노력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연구가 필요함을 설명
  - 북한의 개혁 지향적인 경제 아이디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부 안전 환경 개선에 대한 검증 필요성과 북한의 경제 정책 개혁과 외교 전략 간의 연결을 더욱 면밀히 고려한 미국의 대북정책 고안 필요성 등을 제기함.

## 북한 정세·연구 동향

(2024. 2. 26.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최근 북한 김정은의 민족, 화해, 통일 부정 및 적대적 2개 국가론 주장과 관련된 여러 견해가 우리 사회 내에서 점증하고 있음. 남북관계 단절이 이미 오래 지속되어 왔으며, 총선 및 경제상황 등 국내 이슈가 심각하여 아직은 상대적으로 큰 이슈물이가 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향후 주요 국가 정책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됨.

### < 관련된 여러 견해 >

- \* “North Korea’s New Unification policy: Implications and pitfalls,” (1.11. Ruediger Frank, 38 North)
- \* “아직도, 우리의 통일은 소원인가?,” (1.17. 임지현 서강대 역사학과 교수, 조선일보)
- \* “민족공조를 정권세습에 이용해 온 북한 민낯,” (2.20. 안호영 전 대사, 중앙일보)
- \* “진실을 인정한 김정은,” (2.21. 란코프 국민대 교수, 매일경제)
- \* “국제법 무시한 김정은 대남 도발 헛꿈,” (2.21.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서울신문)
- \* “남북, 동족은 아니라 해도 적이 될 필요야,” (2.21.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 한겨레)
- \* “북한의 노선전환을 보는 두 가지 시선,” (2.22. 성기영 박사, 한국일보)
- \* “영구분단 대 자유 평화통일 한반도,” (2.22.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 서울신문) 등

현재까지 논의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틀 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

### < 북한 대남전략 변화의 원인 >

1. 대남 단절을 통한 부정적 영향력 차단
2. 대남 군사적 공격(핵공격 포함)을 위한 사전 정비
3. 대남 협력 가능성 기대의 전면적 소멸
4. 미중 전략적 경쟁의 장기화로 인한 신냉전 도래 판단

\* 보수 진영은 북한 내적 요인(1과 2)에, 진보 진영은 외적 요인(3과 4)를 상대적으로 강조



## 6. 북한·국제 정세 동향

---

### < 강조 포인트 >

1. 분단의 영구화 및 통일 불가 현실 인식
2. 북한 정상국가화 이탈 궤적의 영구화
3. 대북 확장억제 등 방위력 향상
4.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5. 분단 극복과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의 지속
  - \* 대략 1번은 아직은 외국인들이 주장이 다수, 보수는 2와 3에 방점, 진보측 여론은 아직 4 정도에 머물고 있는 반면, 보수 인사들 중심으로 5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연설에 대해 반통일, 반민족적이라 평가)

### < 대책 방향 >

1. 분단의 영구화 및 통일 불가 현실 인식을 강조하는 견해는 2국가론에 기초한 외교관계 정립 주장 - 단, 국가간 관계 전환이 긴장완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한 논리적 설명 부재(외국인 논자들)과 분단 영구화시 동북아에서 한국의 역량과 지위가 구조적으로 한계를 갖는 데 대한 문제 의식과 해결방안은 미 제시(국내 논자)
2. 북한 정상국가화 이탈 궤적의 영구화를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북한 인권의 강조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등 주장
3. 대북 확장억제 등 방위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의견은 자체 핵 무장 등 트럼프 집권시 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촉구
4.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진보 측에서는 원론적 입장 표명 외 아직 뚜렷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5.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분단 극복과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의 지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보수 측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통일 지향적 특수 관계론 및 민족적 동질성 유지, 통일의지 고양 등 전통적 대내 통일기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외에도 탈북자 문제 및 북한 인권 강조 등 보수의 아젠다가 함께 제언되고 있음.

---

## 연구소 소식





# 1. 연구소 동정

##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임명 (2024. 2. 1.)

- 성 명: 전령현(全玲賢)
- 주요경력: (現)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국제 간사, 중국 화동정법대 한국법연구소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펠로우(2023.2~202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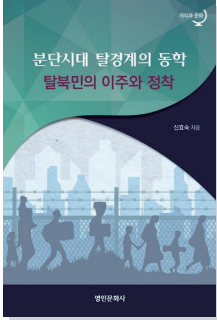
## ■ 경남대 2024학년도 1학기 전체 교수회의 개최 (2024. 2. 19.)

- 일자/장소: 2024. 2. 19.(월), 경남대 한마미래관 4층(심연홀)
- 참 석 자: 박재규 경남대 총장 등 경남대 전체 전임교원
- 내 용: △총장 인사말씀 △신임 보직자 및 교원 소개 △한마교육상 시상 △2024년 부서별 업무 보고 등



## 2. 추천 도서

### 분단시대 탈경계의 동학: 탈북민의 이주와 정착



저 자: 신호숙

출간일: 2023. 11. 7

출판사: 명인문화사

쪽 수: 370쪽

1990년대 유학기간 동안 구소련의 해체로 인한 격변기를 현장에서 겪은 이후, 30여 년간 학계와 현장에서 통일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온 신호숙 박사의 저서를 소개한다.

이 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남북한 사회통합의 중요성과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인지 세밀하게 안내한다. 탈북민의 사소한 습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이해하려 그들의 정서와 일상에 주목했던 저자가 현장에서 탈북민과 동고동락하며 경험했던 상호이해와 인간적 연대가 작은 사회통합의 체험으로서 책의 곳곳에 녹아있다. 저자는 과연 진정한 마음의 통합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 대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동등한 인간으로서 공감하고 환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안내한다. 과거 단순히 식량이 부족하여 살기 위해 탈출한 난민으로 보던 관점에서 서로 배타적인 두 공동체 사이 어느 한 곳에도 속할 수 없는 경계인이자, 경제, 결혼, 자녀교육, 삶의 질 등 탈북 동기가 다양해짐에 따라 초국가적 이주로 이해하는 관점이 모두 제시된다. 탈북 이후의 경로와 그 경로에 있는 국가들의 입장이나 조치를 설명할 뿐 아니라, 인권문제에 주목하여 탈북민들이 겪는 해외에서의 인권유린 사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도 담겨있다.

2부에서는 탈북민들의 입국 직후부터 남한 사회의 정착과 자립까지 겪게 되는 현실적 문제와 그 어려움, 부적응과 탈남 등의 이유를 개인 심리적 특성과 사회·정책 등 구조적인 층위까지 세부적으로 살핀다. 이어 분단체제가 사회 곳곳의 여러 층위에 갈등과 배타를 재생산하는 분단구조로 자리 잡았음을 문제시하며,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피동적 희생자로서 우리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태도를 지적한다. 그간의 탈북민에 대한 교육과 정책적 지원이 동정과 관용을 베푸는 식으로 남한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기에 오히려 소수자인 탈북민으로서는 차별과 무시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탈북민들의 인정투쟁과 정체성 재구성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존중하고 공감하여 마음의 연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사회의 병폐와 취약성까지 통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만 4천명이라는 숫자만큼 각자의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저자의 표현에는 탈북민 개개인에 대한 진정어린 이해와 환대가 중요하다는 성찰이 담겨있다.

이 책에는 현장경험에 대한 치열한 성찰과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저자의 통찰과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 매 파트에서 주요 연구들이 뒷받침되어 있다. 풍부한 이론적 기반과 오랜 경험을 겸비한 활동가이자 교육자, 학자로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활용될 만한 유용한 정보와 여러 분야의 핵심 연구 성과를 총망라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 뿐 아니라 현장의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까지 폭넓은 독자층을 아우른다.

이형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3. 예정사항

### 제6차 삼청포럼 (2024. 3. 5.)

- 일 시: 2023. 3. 5.(화), 19:00 ~ 21:00
- 장 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평화관 1층 대회의실
- 주 제: 독일 분단 시기 동독의 통일 포기과 남북관계 전망
- 발표자: 이동기 교수(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평화학과 교수)

### 『Asian Perspective』 발간 (2024.3월초)

- Vol.48, No.1 (2024 winter)

### 『한국과 국제정치』 특집호 발간 (2024.3월말)

- 제40권 제1호, 2024년(봄) 통권 124호

## 4. 안내사항

###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 ● 가입안내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 (pedia@kyungnam.ac.kr) 발송

#### ● 연회비 납부

<1년 회비>

- 학생회원: 30,000원, 일반회원: 5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 재가입: 회비 만기일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만기안내문 발송)

<평생회비>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납부방법>

- 경남은행 570-07-0011980 (예금주: 경남대학교)으로 입금

#### ● 회원의 혜택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엄 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와 한국과 국제정치, 현대 북한연구 를 포함, 보고서 및 소식지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출판도서 구입시 3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평생회원에게는 무료 기증)
- 본 연구소 도서관을 방문하여 미국의 공신력 있는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www.nknews.org/pro)의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가입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http://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mailto: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